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뉴스, and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픽, 뉴 타임스,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실용영어,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일(음 4월 3일 壬申)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음악을 애인에서 친구로 바꾸려 해요”

가수 조성모 새 앨범 ‘변화의 바람’ 발표

“손에 안 잡히는 애인이라면? 너무 사랑하는데 늘 안 잡히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 서면 위축되고 평소 행동이 안 나오듯이 음악 앞에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가수 조성모(37)는 16년간 해온 음악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새 앨범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을 내면서 자신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인터뷰한 그는 “이젠 음악을 좋은 친구로 두려 한다”며 “시작부터 너무 잘 된 나머지 그게 늘 어깨의 짐이었다. 인기 맛을 알면서 독선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비로소 음악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조성모는 1998년 데뷔와 동시에 스타로 떠올랐다. 1집 ‘투 헤븐’(To Heaven)을 시작으로 2.5집을 포함해 3집까지 총 4장의 앨범이 연달아 밀리언셀러를 기록해 지금까지 총 판매량 1600만 장의 대기록 보유자다.

1990년대 밀리언셀러 시대 마지막 가수로 꼽히며, ‘얼굴 없는 가수’로 등재해 성공한 ‘신비주의 마케팅’의 원조로도 불린다.

그는 “16년을 돌아보면 앨범이 나온 첫날 잘된 게 기억이 아니라 16년간 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가수에 꿈을 뒀던 때가 IMF 때여서 집안 사정이 안 좋았고 꿈만 바라보고 살기엔 내가 잉여 인간 같았다. 입대를 생각하던 중 마지막 찾아온 기회가 당시 지명기획 김광수 사장님이었다”고 말했다.

“새벽 1~2시에 끝나면 광수 형이 제게 차비를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죠. 1998년 여름이 40년 만의 최고 장마였는데 역삼동에서 제가 살던 구의동까지 녹음한 걸 들으며 비를 맞고 걸어도 매일이 기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초심이었죠.”

김광수 사장은 당시 빛을 내 이병헌, 김하늘, 정준호 등을 캐스팅하고 드라마 형식으로 1집 타이틀곡 ‘투 헤븐’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았다.

정식 첫 방송은 1998년 10월 KBS 2TV ‘이소라의 프로포즈’였다. 이후 방송 출연 요청이 잇달았다. 그러자 이병헌, 김승우, 황수정, 김정은을 출연시켜 ‘불멸의 사랑’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1집은 여러 곡의 히트 덕에 150만 장이 팔려나갔고 그는 그해 모든 신인상을 휩쓸었다. 데뷔 앨범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건 당시 변진섭, 신승훈, 서태지와아이들 뿐이었다.

1999년 9월 2집은 첫 주문량이 100만장을 넘겼고 총 220만장이 판매됐다. 이때부터 광고가 밀려들었다. 2004년까지 무려 23편의 광고를 찍었다. 승승장구는 계속됐다. 2000년에는 시인 과총장의 ‘가시나무’를 리메이크한 2.5집, ‘아시나오’가 수록된 3집을 잇달아 내며 그해 최다 판매량인 총 350만 장을 팔아치웠다.

“잘가요...내 사랑...”이 담긴 4집(2001)도 96만장이 판매됐다. 모두 이경섭과 손잡고 작업한 음반들이다.

2002년 김광수 사장과 전속 계약을 마친 그는 다른 기획사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때 제 마음은 위기였어요. 그래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했죠. 제 선택에 따른 후회도 있었지만 음악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때 맞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굳은 각오로 만든 2003년 5집으로 그해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2004년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 ‘너의 걸요’를 불러 변함 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그러나 2000년 중반부터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전환되며 그 역시 상승세가 멈췄다. 2005년 6집을 내고 이듬해 입대하면서 2008년 제대까지 공백기도 생겼다.

2010년 ‘바람필래’가 수록된 미니음반으로 음악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전반전에서 기록적인 ‘골맛’을 봤던 그에게 아쉬운 성적이었다. 그해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해 팬들의 아쉬움도 샀다.

조성모는 올라갔을 때 몰랐던 걸 내려오면서 배운다고 했다. 그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모자라다’는 것인데 그건 다시 채울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음악적인 변화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그리고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나이에 맞게 살아가고 싶다고 “올해는 2세 계획도 세워야겠다”고 웃었다. /연합뉴스



꼼작 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승기·고아라 등 SBS 새 수목극으로 출격준비 완료

화려하지만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도시 강남. 그곳을 담당하는 강남경찰서에 신입 경찰 4인방이 모였다.

사범시험 1차에 붙었지만 고시를 접고 경찰이 된 은대구(이승기), 고졸 출신으로 일곱 번 만에 시험에 합격하고 수당에 흑해 형사과에 지원한 홍일점 여수선(고아라), 차분한 성격에 귀족적인 외모지만 비밀에 싸인 박태일(안재현), 형사가 아닌 공무원이 목적인 지국(박정민).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최고의 수사관 서판석(차승원)이 강력 3팀을 이룬다.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강남경찰서 강력 3팀의 신입 경찰 4명의 이야기를 담은 ‘청춘 성장 로맨스 수사물’이다.

“군제어라 금순아”, ‘외과의사 봉달희’ 등을 쓴 이정선 작가가 집필하고 ‘자이언트’, ‘돈의 화신’ 등을 만들었던 유인식 PD가 연출한다.

유 PD는 30일 목동 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초년생들의 성장기이자 형사로서 외과의 삶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가는 성장기”

라고 소개했다. “최고의 사랑” 이후 3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차승원은 베테랑 형사 서판석 역을 맡았다.

그는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는 맹수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며 “정극과 희극을 오가는 연기를 선호하는데 서판석 역할이 딱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은대구 역을 맡은 이승기는 “어머니의 죽음을 파헤치려고 경찰이 돼서 팀원들과 좌충우돌하며 성장해 오고 있었을 때부터 악연이 있는 서 팀장과의 기억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일점 여수선 역의 고아라는 “20대 중반에 사회에 입성한 친구들의 아이콘 같은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그는 “제 주변 친구들도 인턴으로 막 사회에 나가거나 아직 대학에 다니기도 하는데 꿈이 확실한 친구들은 별로 없다”며 “그들의 대표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역할이어서 내 토래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리데이즈’ 후속으로 오는 7일 첫 방송을 한다. /연합뉴스

장서희, ‘빠꾸기 등지’로 4년만에 안방 복귀



중국에서 활동해 온 배우 장서희가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1드라마 홍보사는 장서희가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의 여주인공 백현희 역으로 캐스팅됐다고 30일 밝혔다.

“빠꾸기 등지”는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자의 대리모가 되어 복수를 꿈꾸던 여자가 진정한 모성

애와 사랑에 눈뜨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멜로 복수극’이라고 제작진은 전했다.

장서희가 맡은 백현희는 조용한 성품이지만 내면에 강인함을 지닌 여자로, 진한 모성애와 사랑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다현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와 대리모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남편 정병국 역을 맡았다.

‘루비 반지’의 황승연 작가가 쓰고 ‘사랑과 전쟁’의 박기원 PD가 연출하는 ‘빠꾸기 등지’는 ‘천상 여자’ 후속으로 다음 달 2일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